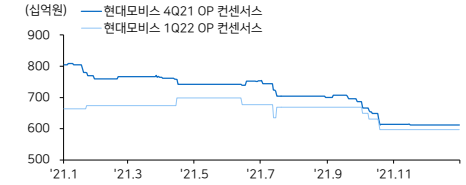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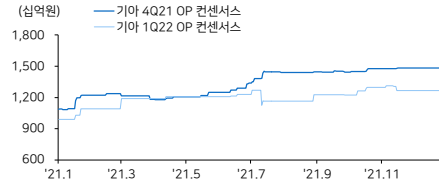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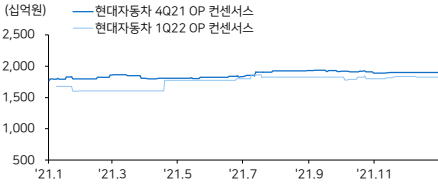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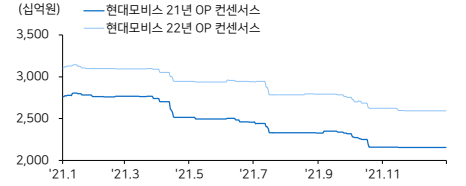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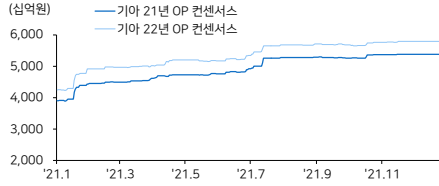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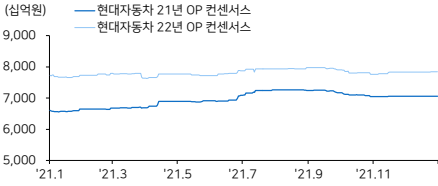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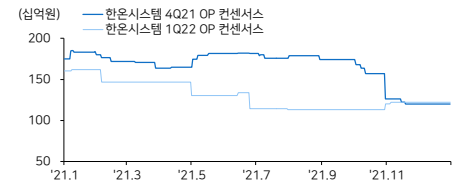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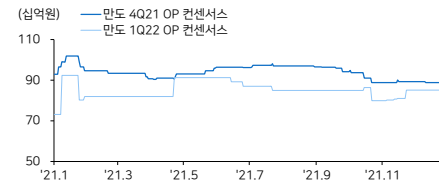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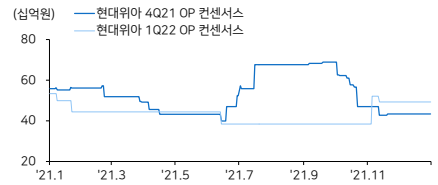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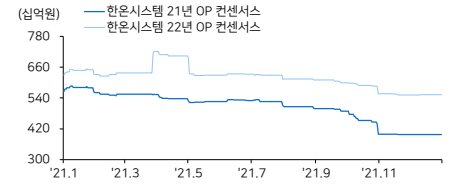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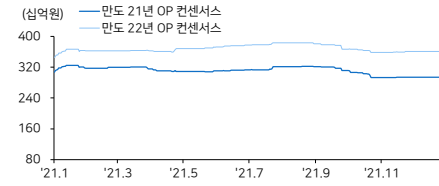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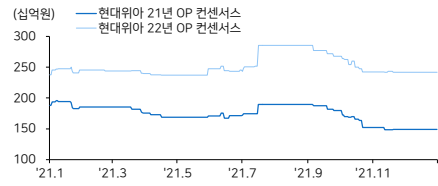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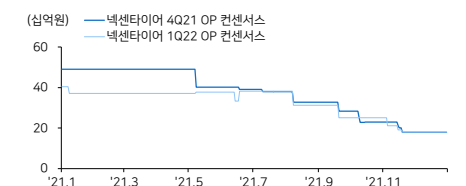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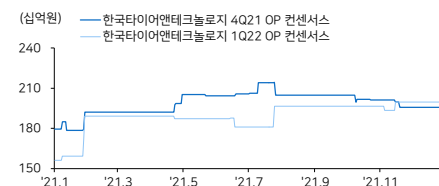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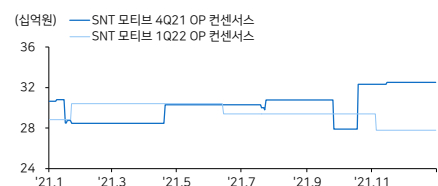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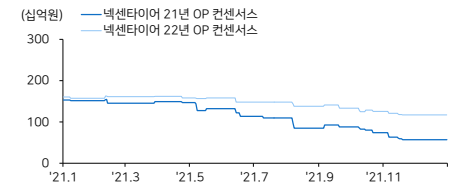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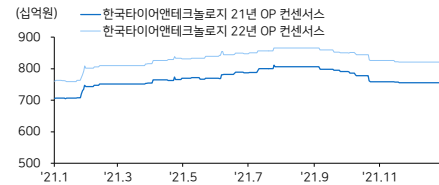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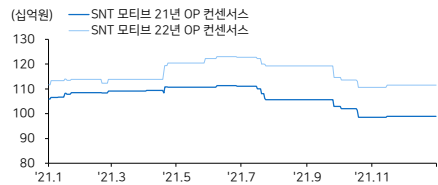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전기차 유럽서 통했다...르노 제치고 3위 (뉴스토마토)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프랑스 르노를 제치고 3위에 이름을 올림. 올해는 아이오닉 5, EV6에 이어 GV60, G80 등 제네시스 전기차까지 유럽에서 판매가 본격화되는 만큼 현대차그룹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https://bit.ly/3r4PYjx>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전전공공하는 완성차업계 (경향신문)

완성차 업체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품 미사용, 오작동 가능성을 염두하고 타 제품으로 임시 대체, 직접 반도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 업계는 23년 돼야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 존재. <https://bit.ly/3qVx0AI>

At CES, tech alliances firm up in the self-driving car wars (Reuters)

이번 CES 2022에서는 GM, Ford, Volvo 등의 완성차 업체가 핵심 기술 파트너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Tesla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 또한 자율주행 전기자의 두뇌 Chip은 Intel Mobileye, 필립, Nvidia가 리더로 자리잡음. <https://reut.rs/33XHC7>

Geely and Foxconn establish JV to push back against chip shortage (electrek)

Geely와 Foxconn은 각각 50%를 출자하여 Shandong Fujikang JV를 설립함. 사업내용은 지능형 차량 장비, 제어 시스템, 전력 전자 부품 및 집적 회로 칩의 제조 등을 포함. 반도체 부족으로 타격을 입은 완성차 업체들의 동맹 중 하나. <https://bit.ly/3F8FbJx>

미국서 혼다 제친 현대차 비결은...북미 시장 "한국이 브랜드" (머니투데이)

무노스 사장은 '향후 미국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를 확대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 브랜드파워 전격 강화' 등을 인더뷰에서 언급함. 여전히 제네시스 브랜드, SUV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참언. <https://bit.ly/3HRT69v>

머스크 "테슬라 FSD 가격 17일부터 1.2만달러로 인상" (이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자율주행(FSD) 패키지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1만 2,000달러(약 1,445만원)로 인상한다고 밝힘. '19년에는 5,000달러였던 FSD 가격이 3년만에 두 배 상승함. <https://bit.ly/31GplZP>

U.S. hybrid electric car sales hit record highs (Reuters)

Wards Intelligence의 데이터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의 미국 판매는 작년의 76% 증가한 801,550대로 미국 경차 판매의 5%를 차지, 전기차 판매는 83% 증가한 43만4,879대로 시장 점유율은 3%를 차지함. <https://reut.rs/3Gbfzdz>

Tesla-CATL partnership strengthens as new facility sends cells to Giga Shanghai (Teslarati)

Tesla 배터리 공급업체 CATL의 신규 시설이 이미 상해 기가팩토리에 배터리를 보내고 있어 두 회사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확인함. CATL은 '21년 6월 기가 상하이 인근 80GWh의 생산시설을 계획, 현재 약 70GWh Capa를 확보함. <https://bit.ly/31V8jT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